

사진기자의 땅짓

팝콘은 언제 터질까?



구멍을 뚫은 강통에 끈을 달고 불쏘시개를 넣어 소리 내어 돌리는 쥐불놀이, 달집에 불을 사르며 액을 쫓고 풍년을 기원하던 달집 태우기. 어린 시절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대보름 풍습입니다.

이제는 팝콘으로 바뀌었네요. 팝콘·고구마·보리. 무엇인들 어떻습니까. 보름달을 보며 가족의 건강과 한 해 소원을 비는 마음은 똑같지 않겠습니까.

I love MY student



윤영호 <원동 청산중학교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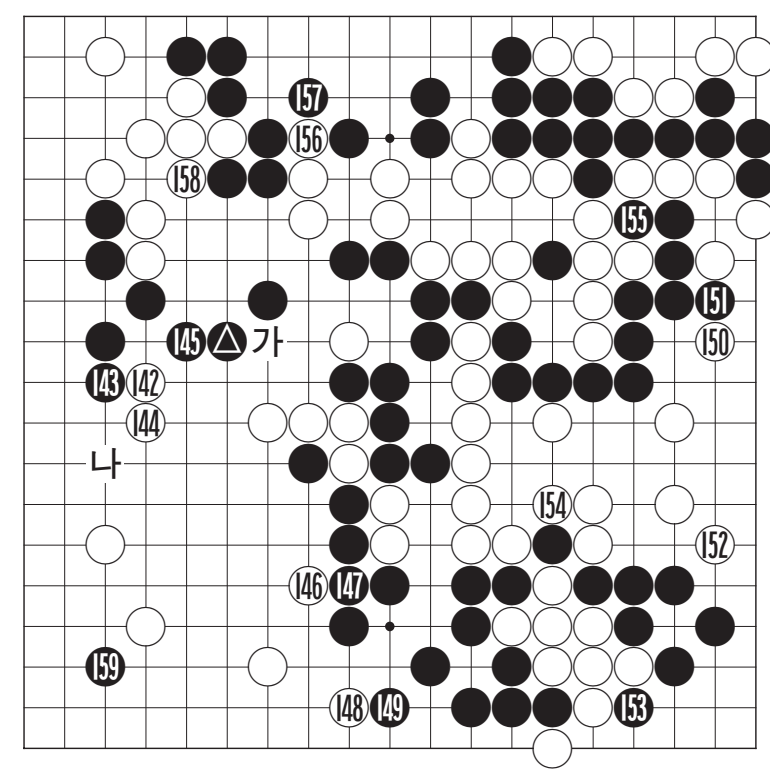
나는 매일 아침 8시를 전후하여 도서관의 문을 연다. 지난 2003년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정보화면 시설과 함께 깨끗하게 단장한 도서관의 정문을 열면 제일 먼저 대출용 컴퓨터를 켜다. 그리고 밤 사이 책이 켜켜이 쌓였을 먼지와 냄새를 내보내기 위해 모든 창문을 활짝 열어서 환기를 시킨다. 본교에 부임하여 독서교육부장을 맡으면서 벌써 3년째 매일 반복되는 나의 일상이 될 일들이다.

다독왕(多讀王) 수진이

교하는 녀석들을 바라보다가 다시 대출대에 앉으면 어김없이 도서관 문을 열고 들어오는 녀석이 하나 있다. 들어오자마자 인사는 뒷전이고 다짜고짜로, "선생님, 책 다 읽었어요." "그래, 그럼 주인공의 이름이 뭐였지?" "어제 읽어서 다 까먹었는데요."

가 검색을 하게 되고, 수진은 꼭 친구들이 대출해서 읽고 있는 책만 찾게 되기 때문에 "대출중"이라는 검색 결과가 나오기 마련이다. "누구누구가 빌려 갔어요? 언제 반납해요?" 등의 몇 가지 추가 질문을 던지고서야 다시 책장 사이로 사라지고 잠시 후 어디선가 두 권의 책을 손에 쥐고 나타나 대출해 가면서 수진의 아침 도서관 일과는 끝이 난다.

점심 시간을 비롯해 하루에 한두 차례는 집으로 전화를 해야 마음이 안정되는 수진이 매일 거르지 않고 도서관을 찾는 이유가 처음에는 무척 궁금했다. 수진은 다독왕이 되고 싶어 했다.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다고 한다.



제35기 강국전 5부 명인전 예선회전 白 조훈현 9단 黑 조경호 초단

바둑소식 권감용, 지지옥선배 본선 진출 권감용 7단과 이영신 4단이 제1회 지지옥선배 본선에 진출했다.

뉴스퀴즈 54. 한국 입양아 출신 미국 스키 스타가 최근 한국에 사는 친아버지와 26년만에 상봉했습니다. 자신의 약혼녀와 함께 방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아버지를 확인한 이 선수는 지난해 토리노 동계올림픽 프리스타일스키 남자 모굴에서 동메달을 딴 뒤 한국계 입양아임을 밝혀 화제가 됐습니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6일(음 1월 17일 己未) 子 36년생 부부간의 언쟁을 현명하게 넘겨라. 48년생 하는 일마다 불편한 인연이 따를 수가 있다. 60년생 뜻밖의 협조가 있으나 결과는 미미하다.

더마플라스트 밴드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DermaPlast. 제품구입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

What do you do for fun? 何か心配事でもあるんですか? 一边散步, 一边嗶京劇 消息(소식) 당신은 여가 시간에 뭘 하죠?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습니까? 조경호는 흑 155를 맞았게 선수하고 나서 드디어 숙제로 남아있던 좌하귀에 159로 쳐들어 간다.